

전주국제영화제 화려한 막 올라 직장인 위한 국악연수 야간반 운영

배우 권해효·박하선 사회로 개막식 진행...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려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영화제 표준을 제시할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5월 8일까지 열흘간의 영화 축제를 시작했다.

배우 권해효와 박하선의 사회로 문을 연 개막식은 전주국제영화제 김승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악단관찰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다. 또 배우 권해효, 박하선, 최수영 배우 등 국내 심사위원들이 무대 위에 올라 소개했으며, 국제경쟁 심사위원 비냐 칼루제르치치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해외 게스트들은 영상 메시지로 영화제 관객에게 인사를 전했다.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의 첫 번째 주인공 류현경 프로그래머 역시 무대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개막식 이후에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아버지의 길>이 상영됐다. <아버지의 길

>은 세르비아의 스테판 고루보비치 감독의 네 번째 작품으로, 가난의 골레에 허덕이는 일용직 노동자인 니콜라가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중앙정부의 장관을 만나러 수도 베오그라드까지 떠나는 여정을 담은 영화다. 정의와 권리가 사라진 부패한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버지의 길>은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며 호평받은 바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 독립영화 역사에 깊은 인장을 남긴 여성 감독 70인을 주목한 '스페셜 포커스: 인디펜던트 우먼'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섹션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등 전주국제영화제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영화 194편을 극장 상영한다. 이 중

142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TT 플랫폼 웨이브(wave)를 통해 온라인 상영을 진행한다.

또한 5월 3일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산업 프로그램 '전주프로젝트'가 개막해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재능 있는 영화인들의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 지원하는 '전주랩' 쇼케이스를 비롯해 한국 다큐멘타리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 'K-DOC CLASS', 영화제 이슈와 담론을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시선으로 제시하는 '전주커퍼런스',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대담과 토크 프로그램 등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양은경 기자

남원시립국악연수원, 9월까지 화·목요일 진행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국악의 본고장인 남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전통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악연수 야간반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악연수 야간반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강습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노안동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강습분야는 판소리, 가야금, 무용, 사물놀이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판소리(민요·사설가·사랑가), 가야금(민요·굿거리·자진모리장단 익히기), 무용(기본부·교방굿거리), 사물놀이(기초사물놀이·설장구) 기초체득 과정이 진행 된다.

국악연수 야간반은 국악의 본 고장인 남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전통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국악



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 예술의 도시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는 국악인재 양성과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가야금, 무용, 사물놀이 반의 강좌를 개설해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버스킹 열린다

무주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 / 회장 이정숙) 버스킹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문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의 몸과 마음에 위안의 시간을 제공하고 생문동과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5월 1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반디랜드에서 AG밴드, 우리민요 열수, 가디록(보컬), 반디블랜드 팀이 공연을 선보인다.

또 5일 수요일(14:00~15:00)에는 소이나루 또는 반디블랜드 앞 공원(우천 시 변경)에서 함줄벗(색소폰)과 AG밴드, 우리민요 열수, 레인보우(플루트), 8일 토요일(14:00~15:00)에는 반디랜드에서 반디블랜드와 셋투리(보컬), 우리민요 열수, 여우소리(기타, 보컬) 팀이 버스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가자를 비



롯한 관람객들의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과 거리두기 등에도 철저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주민들이 만드는 무대, 함께 즐기는 무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외공연의 특성을 잘 살려 안전하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VR·AR 체험 통해 태권도 즐겨요"

태권도원, 신규 콘텐츠 4종 운영... 5월 1~14일 무료 체험·이벤트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태권도원 체험관 YAP(이하 체험관)에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신규 콘텐츠를 도입해 5월 1일 첫 선을 보인다.

5월부터 체험관에서 운영되는 VR·AR 기반 신규 체험 콘텐츠는 '가상 태권전'과 '태권의 제왕', '태권 격과왕', '태권 모험'

등 4종이다. '가상 태권전'은 AR 콘텐츠로 체험자의 움직임을 인식한 가운데 태권도 기본동작을 가상의 사범님과 함께 수련할 수 있다. '태권의 제왕'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경기장인 태권도원 T1 경기장을 배경으로 대련을 펼치는 가상 겨루기 콘텐츠를 모리머리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고 즐기는 VR 방식과 모션인식 방식 등

2가지로 체험할 수 있다. '태권 격과왕'은 체험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송판, 벽돌 등의 장애물을 격파하는 AR 가상 격과 콘텐츠이고, '태권 모험'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태권도원을 탐방하는 투어로 4인이 함께 즐길 수 있다.

VR·AR 콘텐츠는 장비와 센서를 이용하여 체험자 동작을 인식하는 등 시각과 청각, 촉각을 자극해 실감 나는 태권도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손과 발 그리고 상반신 등에 햅틱(진동) 센서를 착용해 타격과 방어에 대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했다.

체험관은 VR·AR 콘텐츠 도입 등 새 단장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범운영을 갖고 이 기간 동안 무료 체험 및 방문 인증 이벤트와 격과왕 체험 이벤트를 진행해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레이저 선 통과'와 '가상 겨루기', '위력격파' 등 14종의 기존 체험 프로그램은 체험관 내에 재구성하여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장용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원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VR·AR 체험을 통해 태권도를 더욱 가깝고 즐겁게 느끼기를 바란다"며 "놀이와 게임으로 즐기는 태권도가 태권도 수련과 도장으로 발전해 이어지는 등 일상 속 건강과 태권도 저변 확대의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체험관 내의 장비 소독과 내부 환기, 마스크 착용, 입장객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한 체험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체험관 YAP(이하 체험관)에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신규 콘텐츠를 도입해 5월 1일 첫 선을 보인다.(사진은 태권모험)

군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개최

섬세하고 깊은 감성을 품은 군산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5월 1일 오후 5시 청암산 오토캠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치유와 힐링이 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무대를 펼친다.

공연은 청암산의 깨끗한 공기와 함께 가족·연인들이 봄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뮤지컬 곡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으며, 작은음악회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갖가지 시름을 잠시라도 떨쳐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은 좀 더 시민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12일 19시 30분 금암동 도시재생순(신영시장 주차장)·5월 13일 19시 30분 월명동 근대문화공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치유와 힐링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시립예술단과 함께 마음적으로 힘든 시민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어려울 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제8회 전국 품바 명인전

2021년 5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 광장

- ▶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위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